

타이완 세딕어 한글 서사체계의 보완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전광진**

◁ 목 차 ▷

- I. 緒論
 - II. 현지 언어 조사의 經過 및 成果
 - III. 한글 서사체계의 修正 및 補完
 - IV. 수정 한글 서사체계의 適用 및 試用 方案
 - V. 結論
-

I. 緒論

타이완 남도어족 언어 가운데 세딕어에 대한 한글 서사체계를 개괄적으로 검토한 2009년 연구, 서사체계 초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한 2014년 연구는 李壬癸(1991), 張永利(2000), 原民會(2005)을 근거로 한 서면 연구였다. 서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총 3차에 걸쳐 현지 언어 조사를 하였고, 그 성과를 통하여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나아가 활용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이 논문의 기본 목적이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 논문의 先聲이자 基礎가 된 두 선행 연구의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기로 한다.

전광진(2009)은 타이완 원주민족 언어 10종에 대한 한글 서사 가능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본 것이다. 이 가운데 세딕어[賽德克, Sediq]는 霧社방언을 중심으로 연구한 張永利(2000)의 조사 보고를 근거로 하였다. 세딕어는 ①머리자음 18개(/p/, /t/, /k/, /q/, /b/, /d/, /g/, /m/, /n/, /ng/, /c/, /s/, /x/, /h/,

* 이 논문은 성균관대학교의 2015학년도 삼성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l/, /r/, /w/, /y/), ② 꼬리자음 11개(/-k/, /-q/, /-n/, /-ng/, /-c/, /-s/, /-x/, /-h/, /-l/, /-r/, /-y/), ③ 모음 5개(/i/, /u/, /e/, /o/, /a/)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듯 음소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아, 한글 서사가 무난할 것을 판단되었다. 특히 음절구조 V, CV, CVC, VC 4종 또한 한글 서사에 장애 요소가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덕어의 한글 서사 적합성이 83%에 달함¹⁾을 알게 되었다.

그 후속 연구는 2014년에야 이루어졌다. 전광진(2014)은 李壬癸(1991)와 張永利(2000)을 근거로 세덕어의 음운 체계, 기초 어휘 및 문법에 관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한글 서사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다. 음성이나 음운에 대한 표기(notation)는 세밀 할수록 좋고, 언어에 대한 서사(writing)는 간략 할수록 좋다는 생각에서 簡略 轉寫(broad transcription) 방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세덕어의 음운 체계를 가급적 간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그러한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세덕어 한글 서사법(안)'²⁾을 입안하였다. ①머리자음(15): p/ㅍ/, t/ㅌ/, k(q)/ㄱ/, b/ㅂ/, d/ㄷ/, g/ㄱ/, c/ㅈ/, s/ㅅ/, h(x)/ㅎ/, l(r)/ㄹ/, m/ㅁ/, n/ㄴ/, ng/ㅇ/, w/우/, y/이/, ②꼬리자음(11): k/ㄱ/, q/ㄱ/, c/ㅈ/, s/ㅅ/, h(x)/ㅎ/, l(r)/ㄹ/, n/ㄴ/, ng/ㅇ/, w/우/, y/이/, ③모음(5): i/ㅣ/(이), u/ㅜ/(에), o/ㅜ/, a/ㅏ/(아).

〈2014 초안〉은 기본적으로 張永利(2000)의 조사 보고를 기초로 한 서면 연구이다. 이 언어를 대상으로는 최초의 체계적인 연구이지만, 정확도와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결정적인 단점도 아울러 지니고 있었다. 동 연구 결과가 과연 현지인에게 적용 가능할 것인가가 현안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5년 1월 26일에 자비로 현지 언어 조사를 감행하였다. 한글로 서사된 세덕어 어휘와 문장을 현지 원주민에게 읽어 주며 하나하나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실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을 확인하여 일단 안도하게 되었다. 그러나 기초 어휘의 의미와 어형에 예상 외로 많

- 1) 세부적으로 나누어 보면, 머리자음(12/18) : 67%, 꼬리자음(7/11) : 64%, 모음(5/5) : 100%, 음절구조 : 100%로 평균 : 83%이었다(전광진 2009). 이 통계는 총 음소 가운데 難寫음소를 제외한 한글서사 가능음소의 비율을 단순 집계한 초보적인 연구였다.
- 2) 2014년 연구 결과로 입안된 '세덕어 한글 서사법(안)'을 이하에서는 '〈2014 초안〉'이라 약칭하기로 한다.

은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 대단히 당혹스러웠다. 더욱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현지 언어 조사 및 확인 작업이 필요함을 절감하였다. 2015년도 교내 연구비를 지원받음으로써 제2차 조사(2016. 2. 12 - 2. 18)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두 차례에 걸친 현지 언어 조사 결과로 수집된 각종 자료가 있었기에 이 수정 보완 연구가 가능해졌다.³⁾

본 논문은 (1)현지 언어 조사의 경과와 성과를 가급적 상세히 기술해 놓음으로써 심화 연구의 기반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는 것, (2) 현지 원주민의 실제 발음을 근거로 삼음으로써 완성도가 높은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 (3) 활용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기초어휘 220개와 10개 문장을 대상으로 수정 한글 서사체계를 適用시켜 실용 적합성을 점검해 보는 것, (4) 수정 한글서사체계의 試用을 위하여 현지인들에게 홍보할 〈한글 서사 주기도문〉을 작성하여 활용 기반을 구축하는 것, 이상 4가지 기본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이를 통하여 하나의 언어에 대한 한글 서사체계 수립의 지속적 연구의 새로운 모델을 創出해 보기로 한다. 즉, 수평적 확장에서 수직적 深化⁴⁾로 나아가는 길을 開拓할 것이다.

II. 현지 언어 조사의 經過 및 成果

타이완 원주민족 언어에 대한 한글 서사체계를 입안하는 일련의 연구 결과가 과연 현지 원어민에게 적용 가능 할지 그 적합성을 음성학적으로 직접 확인해 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래서 현지 출장 조사를 염원하게 되었고, 그 1차 조사가 2015년 1월 26일(월)에서 2월 2일(월)까지 자비로 이루어졌다.⁵⁾ 2014년에

3) 2차에 걸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논문의 초고가 작성된 것은 2015년 10월 이었다. 2016년도에 수혜한 연구재단 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세딕족 거주 지역을 탐방(2016년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하는 기회가 있었기에 이 초고에 대하여 현지인을 통한 검증 작업을 실시하였다(이후 '3차 조사'라 칭함).

4) 전광진(2002, 2019, 2011, 2014a, 2014b)은 각각 로바족, 부눈족, 루카이족, 어윙키족, 세딕족의 언어에 대하여 한글 서사 체계를 수평적으로 확장시키는 일련의 연구였다. 동일 언어(세딕어)에 대하여 2차 연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한 3차 연구는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수직적 심화 연구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입안한 세딕어 한글서사체계는 물론, 2010년에 발표한 부눈어 한글 서사체계, 2011년에 입안한 루카이어어 한글 서사체계, 이상 3종 언어에 대한 한글서사체계를 전반적으로 조사 확인하였다. 埔里에서 머지않은 곳에 九族文化村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常駐하고 있는 부눈족, 루카이족 원주민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었다.

가장 체계적이고 확실하게 조사하였던 것은 세딕어였다. 李秀晚 한인회장을 통하여 세딕어 전문가인 와판 디로(Watan Diro, 瓦坦吉洛) 목사⁶⁾를 소개 받았기 때문이다. 그에게 2014년에 입안한 한글 서사체계로 서사된 단어와 문장을 읽어 준 결과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초 어휘 자체에 상당히 많은 오류가 있음을 지적 받았다. 그래서 세딕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 연구는 후일을 기약하며 1차 탐방을 마쳤다.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16년 2월 12일(금)부터 2월 18일(목)까지 2차 조사를 하게 되었다. 세딕어 전문가의 협조를 덕분에 전반적이고 집중적인 조사 확인 결과 세딕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1) 세딕민족의 갈래 및 언어 분파에 대한 재인식

2008년 4월 23일 대만 정부에 의하여 제14번째 臺灣原住民族으로 공식 인정된⁷⁾ 賽德克族은 대만섬 中央산맥 서쪽의 南投縣과 동쪽의 花蓮縣 고산지대에 분

- 5) 세딕족 거주지와 머지않은 埔里에 지인(이수만 한인회장)이 있어 숙식에 따른 여러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특히 원어민 섭외 등 많은 난제에 대하여 도움을 받음으로써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감사한 마음을 이에 담아 오래오래 간직하고자 한다.
- 6) 와판 디로(Watan Diro, 瓦坦吉洛) 목사는 1971년 1월 1일생으로 臺灣 南投縣 仁愛鄉 春陽村 10鄰 虎門巷 52號 (watandiro@gmail.com)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학대학 출신임에도 언어학에 조예가 깊어 《賽德克民族語圖解辭典》(2009년)의 編輯실무 위원이자 총책임자(總召集人)을 역임한 바 있을 정도로 세딕어에 해박하였다. 특히 아버지는 Toda人 이고, 어머니는 Turuk人이며, Tugudaya人 부락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기에 3종 세딕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1차 및 2차 언어 조사에서 이렇듯 매우 유능한 조력자를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 감사함을 이에 적어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한다. 이 논문의 초고가 탈고된 후인 2016년 11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3차 언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때에는 많은 어문 정보를 그로부터 제공받음으로써 정확도를 좀더 높일 수 있게 되었다.
- 7) 2007년 9월 13일에 UN에서 ‘국제 원주민족 권리 선언’이 가결되었는데, 그 제3조에 “원주민족은 자결권을 향유한다. 본 항의 권리에 근거하여, 그들은 자기 민족의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고, 자기 민족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발전을 자유로이 추

포되어 있다. 中央산맥의 白石山에 있는 거대한 石柱가 그들 조상의 發祥地라고 하며, 南投縣 仁愛鄉 濁水溪 상류가 본래 거주지였다. “Seediq Tgdaya 德固達雅群, Sediq Toda 都達群, Sejiq Truku 德路固群” 이상 3개 語群으로 세분되며, 인구는 8천 - 9천명 정도이다.⁸⁾

張永利(2000)는 세딕어(賽德克, Sediq)를 泰雅語群의 한 갈래로 보았으며, 3개의 次방언, 즉 太魯閣방언, 春陽방언, 霧社 방언으로 나누었다. 현지 언어 조사 결과 이러한 방언 분류는 현실성이 없었으며, 현지 원주민들은 자기 언어를 방언이라 하는 것에 대하여 극도의 혐오감을 지니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세딕어를 自稱 부족명에 따라 세에디크-뚜구다야語, 세디크-또다語, 서지크-뚜루꾸語로 세분하기로 한다.

(2) 한글 서사체계 수립 대상의 명료화

張永利(2000)의 연구가 기초로 삼은 霧社 방언이 현지 출장 조사를 통하여 Sediq Tgdaya(德固達雅)語임을 알게 되었다. ‘세에디크-뚜구다야’ 부족은 대만 원주민 가운데 가장 극렬한 항일 투쟁을 벌인 것으로 유명하다. 1930년에 발발한 이른바 ‘霧社事件’의 주역이었다. 이 투쟁이 있기 이전에는 3개 부족 가운데 가장 강한 세력이었다고 한다. 일본군에 의하여 대규모 학살이 자행된 결과 가장 약한 부족으로 전락하였다.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해 투쟁에 가담한 6개 부족 가운데 생존자들을 강제로 北港溪 중류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일본군은 그들을 ‘川中島社’라고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만의 原住民族基本法 제4조에도 “정부는 마땅히 원주민족의 요구에 부응하여 원주민족의 평등한 지위 및 자주적 발전을 보장하고, 원주민족의 자치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여 ‘民族自決’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정세를 배경으로 세딕민족에 의한 자치적 正名 운동을 10여 년간 펼친 노력의 결실로 대만 정부가 공인하는 原住民族이 되었다(참고 洪良奎 2009, 1).

- 8) 타이완 섬의 원주민족 가운데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은 총 16개이다. 이 가운데 賽德克族은 2008년 4월 23일에 제14번째로 공인되었으며, 2015년 10월에 실시한 인구 통계에 따르면 賽德克人은 8천명이라고 한다(宋麗梅 2016, 3). 2016년 6월 현재 총 원주민족은 약 55만명(총인구의 2.34%에 상당)이라고 하며, 2016년 9월 현재 賽德克族의 인구는 총 9,615명이라고 하는 설도 있다(眉原基督長老教會 2016, 16). 3차 현지 언어 조사 때 Watan Diro의 傳言에 따르면 이 가운데, 뚜루꾸인이 4,500명 정도이고 또다인과 뚜구다야인이 각각 2,500명으로 총 9,500 명 정도라고 한다.

불렸으며, 현재 仁愛鄉 互助村 Guluban(谷路邦, 清流) 부락이 바로 그 곳이다.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사실로 보자면, 2009년과 2014년 연구에서 ‘세딕어 한글 서사체계’라 한 것은 서사체계의 대상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점이 있음을 현지 조사를 통하여 명백하게 밝혀졌다. 따라서 대상 언어를 더욱 명료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세에디크-뚜구다야語 한글 서사체계’라 명명하기로 한다.⁹⁾

(3) 수정 보완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수집.

〈2014 초안〉에서 예시한 세딕어 기초 어휘 237개, 10개 문장에 대하여 하나하나를 현지 원어민 전문가에게 읽어주고 청취 인지가 가능한지를 확인한 결과, 근거로 삼았던 張永利(2000)의 예시 어휘 자체에 많은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한 오류에 대한 정확한 어료를 다량 확보함으로써 본 연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는 제3장과 제4장에서 상세히 언급할 것이다.

(4) 새로운 언어자료의 수집.

1차 및 2차 현지 언어 조사를 통하여 많은 언어자료를 새로이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본 연구는 물론 앞으로 지속적인 심화 연구의 기반을 확고하게 다질 수 있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저술 세 가지만 열거하여 설명해 보기로 한다.

① 《賽德克民族語圖解辭典》(李祖欽 2009년, 南投縣原住民族行政局 출판)은 세딕민족에 의하여 편찬된 최초의 사전이다. 2005년 12월 5일 타이완 교육부와 행정원 원주민족위원회가 반포한 “賽德克語書寫系統”(세딕어 알파벳 서사체계)에 의거하여 총 1,105개 어휘가 수록되어 있다.¹⁰⁾ 각 단어의 어형을 또다語, 뚜구다야語, 뚜루꾸語 셋으로 나누어 표기되어 있고 각 언어의 예문을 제시한 다음 문장

9) 세에디크-뚜구다야語, 세딕 또다語, 서지크-뚜루꾸語 이상 3종 언어를 개괄할 수 있는 절충형 한글서사체계를 수립할 수 있겠으나, 음운 차이가 심한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점이 있다. 서지크-뚜루꾸族에서 분파된 ‘太魯閣族’은 인구가 25,000명에 달할 정도로 강성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10) 이 사전에 수록된 단어를 중심으로 세에디크-뚜구다야어 어휘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필자가 3차 연구 과제로 삼고 있으며, 2016년도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현재 연구 중이다.

의 뜻을 중국어로 번역해 놓았다. 특히 이 사전의 편집총책인 와판 디로(Watan Diro)는 필자가 현지 언어 조사를 갔을 때 자문에 응해준 언어전문가이자 목사이자이다.

② 《臺灣原住民族賽德克民族樂舞教材》(洪良全 2009, 行政院原住民族委員會文化園區管理局 출판). 이 책은 기본적으로 세딕민족의 음악 및 무용 교재이지만, 제1장 “賽德克族文化概述”에는 세딕족의 正名運動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고, 각 부족의 특징 및 이주 등에 대한 기술은 賽德克族을 이해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제4장 “賽德克族音樂”의 제4절 세딕족 음악의 감상 및 교학 부분에는 세딕족 민요 35곡의 악보, 가사, 단어 설명 등이 있다. 가사는 알파벳으로 표기 되어 있고, 가사에 쓰인 각 단어에 대하여는 중국어로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앞으로 민요 가사에 대한 한글 서사체계의 적용 및 보급 기반을 닦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③ 《德克達雅語 學習手冊·教師手冊》(第2階 2006, 行政院原住民族委員會 출판). 이 책은 政治大學의 原住民族研究中心에서 편집한 것으로 세에디크-뚜구다아語 초급 교재이다. 교재의 서사체계는 2005년 12월 5일 타이완 教育部와 行政院 原住民族委員會가 반포한 “賽德克語書寫系統”(세딕어 알파벳 서사체계)을 채택하고 있다. 학생의 흥미와 수요를 위주로 하고 있고, 과정의 주제와 체제는 ‘실용성, 다양성, 생활화, 취미화’라는 4개 원칙에 입각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가볍고 자연스럽게 자기 민족 언어를 배우도록 하고 있다. 본 교재는 뚜구다아어를 처음 배우는 초등학교의 수요에 맞추어 편집되어 있어, 듣기와 말하기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효과적이다. 앞으로 뚜구다아어 한글 서사체계의 보급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학습 교재를 만들 경우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Ⅲ. 한글 서사체계의 수정 및 보완

1. 머리자음의 수정

2014년에 입안한 한글서사체계에 대하여 현지 원주민을 대상으로 확인 및 조사한 결과, 머리자음의 한글 서사는 적합성이 매우 높음을 알게 되었다. 머리자음 서사체계 15 종 가운데 3종만 수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단어를 예시해 보기로 하겠다.

(1) 파열음 /q/

파열음 /k/와 /q/에 대하여 李壬癸(1991), 張永利(2000), 原民會(2005) 모두 각각 독립 음소로 보고 있으나, 〈2014 초안〉에서는 준동음어가 없다는 점, 음운의 서사(writing)는 음운 표기(notation)와는 달리 간략할수록 좋다는 원칙에서 /q/를 /k/의 변이음으로 간주하여 둘 다 [ㄱ]으로 서사하였다. 그러나 1차 및 2차 현지 언어 조사 결과 /q/의 출현 빈도가 대단히 높음을 확인하였다. 변이음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무리이므로, [ㄱ]로 서사하는 방안으로 변경하기로 한다. 한국어의 [ㄱ]은 [무성-유기-설근-파열음]이지만, 이 언어에서는 [무성-무기-소설-파열음]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수정안이 /k/와 동일하게 [ㄱ](무성-무기-설근-파열음)으로 서사하는 것 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을 것 같다. 이 자음을 가진 단어를 예시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쿠미유츠]¹¹⁾ ‘물다’(咬) qumiyuc¹²⁾

11) 예시에 쓰인 한글 서사는 수정안을 종합적으로 적용한 결과이다. 즉 1차 방안에서는 [꾸미이웃]이었다. yu를 [이우]에서 [유]로, c를 /-츠/에서 /츠/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종합적으로 적용시킨 결과 [쿠미유츠]로 변경되었다. 이하 예시 단어에 대한 한글 서사는 해당 음소는 물론 다른 수정안도 종합적으로 적용시켜 나타내도록 한다.

12) 세덕어에 대한 알파벳 서사체계에서는 첫음절의 u는 생략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이러한 관례에 따르면 qumiyuc은 qmiyuc으로 서사하여야 하나, 연구의 편의상 이러한 관례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겠다. 복자음으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알파

[쿠루리]	‘표류하다’(漂流)	qululi
[쿠띠]	‘똥’(屎)	quti
[코리츠]	‘들쥐’(田鼠)	qolic
[카삐]	‘함정’(陷阱)	qapi

(2) 파열음 /c/

세딕어의 파찰음 /c/는 머리자음과 꼬리자음 모두에 등장되는데, 李壬癸(1991)는 “ts는舌尖과舌面이 혼합된 무성 파찰음으로, 발음부위가 t, d에 비하여 약간 뒤쪽으로 英語의 [tʃ]보다는 약간 앞이다. 복자음으로 오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c로 표기한다. c가 語頭나 語中에서는 무기음인데, 語尾에서는 유기음으로 발음된다.”¹³⁾라고 하였고, 張永利(2000)는 “c는 설첨과 설면의 중간에서 발음되는 무성 마찰음으로, 그 발음 부위가 t, d에 비하여 약간 뒤쪽이고, 영어 [tʃ]에 비하여 약간 앞쪽이다.”¹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자음에 대하여 <2014 초안>에서는 초성 종성을 막론하고 모두 [ㄷ]으로 서사하였다. 1차 및 2차 현지 언어 조사 결과, 李壬癸(1991)의 설명이 옳았다. 語頭와 語中에서는 무기음(ts, ㄷ)로, 語尾에서는 유기음(tsh, ㄷ)로 발음되었다. 따라서 꼬리자음의 서사 방안의 수정안에 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머리자음의 서사는 [ㄷ]에서 [ㄷ]로 바꾸는 수정방안을 제시하고 이러한 자음을 가진 단어를 예시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씨헤딘]	‘무거운’(重的)	cehedin
[쭈메부]	‘쏘다’(射)	cumebu
[쭈미유꼬]	‘대답’(回答)	cumiyuk
[쭈루까흐]	‘가벼운’(輕的)	culukah
[씨다]	‘가지’(枝)	cida

벧 서사체계에 의한 세딕어 문장을 인용하는 경우는 그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13) “ts는舌尖面混合清塞擦音, 部位比t, d稍後, 比英語的 [tʃ] 稍前。爲避免誤爲輔音群, 記作c。c在字首字中不送氣, 字尾送氣。”

14) “c是一個舌尖和舌面之間之清擦音, 發音部位比 t, d稍後, 比英語的 [tʃ] 稍前。”

(3) 비음 /ng/

〈2014 초안〉에서는 머리자음에 쓰이는 /ng/을 현용 한글 자모 [ㅇ]로 서사하면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과 혼동이 생기게 마련이라 생각하여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훈민정음 자모 [ㅇ]을 활용하여 서사하기로 하였다. 2차 현지 언어 조사 때, [아랏](오른쪽(右邊) ngarac), [이로](‘버섯’香菇 ngiro), [이오](‘고양이’(貓) ngio)라 읽어서 들려주고, 다시 현용 자모 [ㅇ]로 바꾸어 들려 준 결과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서사하기로 한다.

[아라츠]	‘오른쪽’(右邊)	ngarac
[아얀]	‘이름’(名字)	ngayan
[이로]	‘버섯’(香菇)	ngiro
[이오]	‘고양이’(貓)	ngio

ng가 語中에 오는 단어를 서사하는 경우는 음절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서사 방식이 달라 질 수 있다. ng를 앞 음절의 꼬리자음으로 보느냐, 뒤 음절의 머리자음으로 보느냐라는 서사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친구’(朋友)를 뜻하는 dangi를 CVC+V 구조로 보아 [당이]로 서사할 것인가, 아니면 CV+CV 구조로 보아 [다이]로 서사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다. 후자로 본다면 ngo, nga, ngu, ngi의 ng에 대하여 음가를 부여하지 않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음절구조를 前者와 같이 앞 음절의 꼬리음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서사하기로 한다.¹⁵⁾

[루멩오]	‘말하다’(說)	rumengo
[뭉아리]	‘아홉’(九)	mungari
[루망우이]	‘수영하다’(游泳)	lumanguy

15) 이러한 방침을 정한 후인 2016년 9월 30일 국립한글박물관 훈민정음 학술대회에 참가하였다가 이재돈(2016)교수의 구두 발표 가운데 鮒魚(부어가 ‘붕어’로, 鯉語(이어)가 ‘잉어’로, 鱸魚(노어)가 ‘농어’로 바뀐 음운 변화에 대한 언급을 듣게 되어 매우 고무되었다. 이 음운 변화를 한글 서사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魚는 중국어 중고음(MC) 疑母(ng)를 가진 글자이다. 따라서 ‘부어>붕어, 이어>잉어, 노어>농어’ 같은 한국어 음운변화 현상으로 미루어 보자면, 굳이 옛이음을 써서 [다이]라고 하지 않고 [당이]로 서사하더라도 무방할 것 같다.

[루밍이스]	‘울다’(哭)	lumingis
[당이]	‘친구’(朋友)	dangi

이상과 같이 수정한 결과, 머리자음 14개에 대한 한글 서사체계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¹⁶⁾

p[ㅍ], t[ㅌ], k[ㄱ], q[ㅋ], b[ㅂ], d[ㄷ], g[ㄱ], c[ㅈ], s[ㅅ], h(x)[ㅎ], l(r)[ㄹ], m[ㅁ], n[ㄴ], ng[ㅇ]

2. 꼬리자음의 수정

세딕어-투구다야어는 꼬리자음이 총 11종이나 될 정도로 매우 많은 것이 큰 특색이다. <2014 초안>에서는 k/ㄱ/, q/ㅋ/, c/ㅈ/, s/ㅅ/, h(x)/ㅎ/, l(r)/ㄹ/, n/ㄴ/, ng/ㅇ/, w/우/, y/이/으로 대응시키는 방안을 취하였다. 이 방안에 따라 서사한 단어들을 현지 언어 조사 때 원어민에게 들려 준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한국어에서는 꼬리자음, 즉 종성이 조음 시 어말에서 未破化하여 무음개방(inaudible release)되는데¹⁷⁾, 세딕어의 꼬리자음은 무음 개방되는 것이 아니라 유음 개방이라 할 정도로 강하게 발음하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경우 음절성을 약간 부여하는 방안으로 서사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k[ㄱ], q[ㅋ], c[ㅈ], s[ㅅ], h[ㅎ], x[허]. 이와 같이 모음삽입(vowel insertion)이라는 방식으로 서사하는 것이 현실음을 더 잘 반영하는 것 같다. 마침 그들 언어의 모음 목록 [—]와 [·]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특수 모음으로 추가해도 충돌이 생기지 않는다.¹⁸⁾ 이러한 것을 포함한 꼬리자음 서사체계의 수정

16) 머리자음 14개에 대한 한글 서사체계가 <2014 초안>과 달라진 것은 굵게 표시해 놓았다. 張永利(2000)의 조사 보고에서 머리자음이 18개로 제시되어 있는데, 14개로 줄어준 이유에 대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 반자음 2종이 반모음(이중모음)을 서사하기 위하여 제외되었고, /h/과 /x/이 동일하게 [ㅎ]로, /l/과 /r/이 동일하게 [ㄹ]로 서사됨에 따라 줄어든 결과이다. 그렇게 한 까닭에 대해서는 전광진(2014, 173-176)에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이러한 서사가 의미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17) 이를 테면 속[so:k], 삽[sap] 같은 예가 있다(이호영 1996, 141).

안을 하나하나 설명해 보기로 한다.

① 파열음 계열 : /-k/와 /-q/

2014년 초안에서는 /-k/와 /-q/를 각각 [ㄱ]과 [ㄷ]로 서사하였는데, [ㄱ]과 [ㄷ] 같은 음절로 서사하는 방안으로 바꾸었다.²⁰⁾ 이에 따라 [뚜게야]가 [뚜게야 ㄱ]로, [무딱]이 [무따크]로 바뀌게 됐다. 이러한 부류의 단어를 예시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k/(ㄱ)		
[뚜게야ㄱ]	‘트름’(打嗝)	tugeyak
[꾸마야ㄱ]	‘자르다’(割)	kumayak
[꾸루ㄱ]	‘거북’(龜)	kuluk
[꾸두루ㄱ]	‘이마’(額)	kuduruk
[구마뚜ㄱ]	‘쭈다’(喙)	gumatuk
/-q/(ㄷ)		
[무따크]	‘토하다’(嘔吐)	mutaq
[뚜루크]	‘가래’(痰)	turuq
[도리크]	‘눈’(眼睛)	doriq
[다루크]	‘지방’(油脂)	daruq
[쿠와크]	‘입’(嘴)	quwaq

② 파찰음 /c/

파찰음 /c/는 머리자음과 꼬리자음 모두에 등장되는데, 李壬癸(1991)는 “c가 語

-
- 18) 이 경우 [-](w)와 [ㄷ](ə)는 모음이지만 무성음에 가까울 정도로 성대의 진동이 매우 약한 것이라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 19) 꼬리자음 /-k/와 /-q/에 대하여 종래의 [ㄱ]과 [ㄷ]에서 [ㄱ]과 [ㄷ]로 바꾼 것은 성질을 부여한 것 외에도, 머리자음에서의 변별적 차이가 꼬리자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한 결과이다. [메루ㄱ] ‘닫다’(關上) meluk와 [메루크] ‘날 것’(生的) meluq 같은 준동음어가 그러한 꼬리자음의 차이를 잘 나타내준다.
- 20) Sediq를 賽德克(sàidekè)로 음역한 중국어도 /-q/를 음소가 아니라 음절로 서사한 것이다. 중국문자가 음절문자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결과이긴 하겠으나, /-q/를 [ㄷ]가 아니라 [ㄱ]로 서사하기로 바꾼 수정안에 대한 타당성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頭나 語中에서는 무기음인데, 語尾에서는 유기음으로 발음된다.²¹⁾”라고 하였다. 1차 및 2차 현지 언어 조사 결과, 李壬癸(1991)의 설명과 같이 語頭와 語中에서는 무기음(ts, ㄱ)로, 語尾에서는 유기음(tsh, ㄑ)로 발음되었다. 특히 어미의 경우 유음 개방이라 할 정도로 강하게 발음되어 [ㅈ]로 서사하기로 한다. 이러한 꼬리자음을 가진 단어를 예시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쿠미유츠]	‘물다’(咬)	qumiyuc
[쿠부리츠]	‘잿더미’(灰燼)	qubulic
[코리츠]	‘들쥐’(田鼠)	qolic
[까라츠]	‘하늘’(天)	karac
[무무세빠츠]	‘여덟’(八)	mumusepac
[세빠츠]	‘넷’(四)	sepac

③ 마찰음 /s/, /x/, /h/

마찰음 /s/는 현지 언어 조사 결과 개방(release) 단계가 상대적으로 길게 유지되는 특징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2014 초안>과 같이 [루밍잇]이나 [루궂]으로 서사하는 방안보다 [루밍이스]나 [루궂스]로 서사하는 것이 그러한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 해당 단어들을 예시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루밍이스]	‘울다’(哭)	lumingis
[루궂스]	‘의복’(衣服)	lukus
[데케라스]	‘얼굴’(臉)	deqeras
[누부야스]	‘배’(肚子, 腹)	nubuyas
[쿠네디스]	‘긴’(長的)	qunedis

마찰음 /-x/와 /-h/를 <2014 초안>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ㅎ]으로 서사하였다. 그런데 1차 및 2차 현지 언어 조사 결과 [뚜눔], [쿠웁] 같은 서사 방식은 꼬리자음의 마찰성이 길게 유지되는 현상을 반영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뚜누허], [쿠유허] 같은 서사 방식을 취하기로 수정하기로 한다. 그리고 /-x/와 /-h/

21) “c在字首字中不送氣，字尾送氣。”

의 출현 빈도가 높아 동일하게 서사하는 원안을 수정하여 각각 모음을 삽입하여 [히]와 [흐]로 서사하기로 한다. /-x/의 발음부위가 /-h/에 비하여 앞인 점을 고려하여 모음 [ɪ](ə)를 넣고, /h/는 [-](ɯ)를 넣어 구분하기로 한다. 해당 단어를 예시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x/([히])		
[뚜누히]	‘머리’(頭)	tunux
[쿠유히]	‘비’(雨)	quyux
[쿠쭈루히]	‘물고기’(魚)	qucurux
[꾸무비루히]	‘빌리다’(借)	kumubarux
/-h/([흐])		
[루카흐]	‘상처’(傷口)	luqah
[나카흐]	‘나쁜’(壞的)	naqah
[네에빠흐]	‘밭’(田)	neepah
[꾸마구흐]	‘긁다’(抓癢)	kumaguh
[누누흐]	‘젖’(乳房)	nunuh

④ 설측음 /-r/

張永利(2000)에 채집된 237개 단어 가운데 꼬리자음 /-r/을 가진 것이 2개 밖에 없음(전광진 2014, 180)을 근거로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쓰이는 /-l/의 변이음으로 보아 동일하게 [ɾ]로 서사하였으나, 현지 언어 조사 결과 /-r/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l/은 [ɾ]로 예전과 마찬가지로 서사하되, /-r/은 [r]로 서사함으로써 설측음 꼬리자음 2종을 구분하기로 한다. /-r/을 가진 단어를 예시해보자면 다음과 같다.²²⁾

[비키르]	‘갑상선종’	biqir
[부기후르]	‘바람’(風)	bugihur

22) 2016년 11월 28일에서 12월 7일까지 실시한 3차 조사 때 현지 언어 전문가인 Watan Diro의 제보에 따르면 세에디크-뚜구다야어들은 /-l/과 /-r/을 모두 [-n]으로 발음한다고 한다. 특히 젊은이들이 더욱 그러하다고 한다. 이러한 어문 불일치 현상은 /-l/과 /-r/이 /-n/으로 합병되는 음운변화를 대변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l/과 /-r/에 대한 서사체계를 달리할 필요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따꾸르]	‘넘어지다’(跌倒)	takur
[히꾸르 바가]	‘팔꿈치’(手肘)	hiqur бага
※참고 /-l/([ㄹ])		
[가밀]	‘뿌리’(根)	gamil
[데헤랄]	‘땅’(地)	deheral
[두미딜]	‘들다’(提)	dumidil

⑤ 반자음 /-w/와 /-y/

〈2014 초안〉에서는 음절성을 부여 각각 [우]와 [이]로 서사 하였으나, 현지 언어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y/는 그렇게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다. /-w/는 실제로 발음이 되지 않는 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길’(路)을 뜻하는 eluw의 꼬리자음 w는 묵음이므로 [에루]로 서사하기로 한다. /-w/는 매우 희귀한 꼬리음으로 228개 기초 어휘 가운데 단 하나 밖에 없다.

※참고 : 반자음 /-y/ : 종전과 동일

[루무게루이]	‘체로 치다’(篩)	rumugeruy
[루망우이]	‘수영하다’(游泳)	lumanguy
[구메구이]	‘훔치다’(偷)	gumeguy
[쿠베꾸이]	‘일백’(一百)	kubekuy

위와 같은 수정 보완 검토를 거친 결과 꼬리자음 11개에 대한 한글 서사체계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다.²³⁾

k[끄], q[크], c[츠], s[스], h[흐], x[허], l[ㄹ], r[르], n[ㄴ], ng[ㅇ], y[이]

23) 한글 서사체계 측면에서 보자면 순수 꼬리자음은 l[ㄹ], n[ㄴ], ng[ㅇ] 세 개만 있는 셈이다. 나머지는 다음절 어휘의 끝음절에 해당되는 셈인데, 이 경우 모음은 무성음에 가까운 매우 특수한 음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꼬리자음에 포함시켜 놓았다.

3. 모음 서사의 수정

① 단모음의 서사

세에디크-뚜구다이語는 기본적으로 5개 단모음 체계가 쓰이고 있다. 이에 대한 <2014 초안>의 한글 서사는 현지 언어조사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꼬리자음의 성질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모음 [ɨ]와 [ɨ̃]를 첨가한 것이 수정안의 가장 큰 특색이다. 이것은 순수 모음이라기보다는 성질성을 나타내는 구별기호(diacritics)의 하나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에 대하여는 꼬리자음의 서사 방안에서 이미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한다.

② 반모음 /w/, /y/

wa의 w, yu ye ya의 y를 <2014 초안>에서는 반자음으로 보고 성질성을 부여하여 각각 [우]와 [이]라는 음절로 서사하였다. 이를테면 ‘실’(線)을 뜻하는 wale를 [우아레]로, ‘우리’(我們)를 뜻하는 yami를 [이아미]로 서사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서사 방식이 현지 언어조사 결과 현실과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w와 y를 반자음이 아니라 반모음으로 보고 뒤에 나오는 모음과 결합하여 이중모음을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즉 위의 단어에 대하여 각각 [와레], [아미]로 서사하는 것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렇다면 /w/, /y/를 개음 또는 이중모음의 한 구성요소로 보는 결과가 된다. 수정안을 음절 별로 예시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wa [와] ²⁴⁾		
語頭 용례		
[와레]	‘실’(線)	wale
[와루]	‘벌’(蜜蜂)	walu
[와소]	‘잎’(葉)	waso

24) *wi, *wu, *we, *wo 같은 음절은 실제로 발견된 것이 없다. wa는 語頭와 語中에 두루 쓰이고 있다.

語中 용례		
[수와이]	‘동생’(弟弟妹妹)	suwai
[부루와]	‘천둥’(打雷)	buruwa
[무수와끄]	‘하품하다’(打哈欠)	musuwak
[루마와흐]	‘열다’(打開)	rumawah
[쿠와크]	‘입’(嘴)	quwaq
ya [야] ²⁵⁾		
[야꾸]	‘나’(我)	yaku
[야무]	‘너희들’(你們)	yamu
[야미]	‘우리’(我們)	yami
[야웅]	‘강물’(河流)	yayung
yu [유]		
[미유끄]	‘불다’(吹)	miyuk
[뚜미유]	‘가리키다’(指)	tumiyu
[쿠유허]	‘비’(雨)	quyux
[쿠유]	‘뱀’(蛇)	quyu
[쿠미유츠]	‘물다’(咬)	qumiyuc
ye [예]		
[빠예]	‘벼’(稻穀)	paye

이상과 같은 수정 검토를 통하여 귀납한 모음 부분 한글 서사체계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기본모음(5)	i[ㅣ ~이], u[ㅜ ~우], e[ㅔ ~에], o[ㅛ ~오], a[ㅏ ~아]
특수모음(2)	ㅡ[ㅘ], ㅚ[ㅞ]
이중모음(5)	wa[와], yu[유], ye[예], yo[요], ya[야]

4. 기타: 음절 구조 및 복자음 문제

세에디크-뚜구다이語의 기본 음절 구조는 CVC, CV, VC, V 이상 4 종이라는 설(張永利 2000, 44-46)에 대하여 현지 언어 조사 때 면밀히 조사해본 결과 문제 점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2014년 연구에서는 이 구조를 100% 엄수하는 한글 서사

25) *yi, *yo 같은 음절은 쓰이지 않는다.

체계를 입안하였다. 앞에서 꼬리자음에 대하여 검토할 때 언급하였듯이, CVC의 C에 해당되는 일부 파열음과 파찰음이 유음개방(audible release)되는 현상 또는 마찰음의 지속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특징 등을 반영하자면 CVC를 CVCV²⁶⁾로 서사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한다. 이를 테면 buc ‘뺨’ [뺨]을 [부츠]로 바꾸어 서사하는 것이 어음 현실을 더 잘 반영하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는 꼬리자음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하였기에 더 이상의 언급은 생략하기로 한다.

李壬癸(1991)에 의하여 제기된 복자음 문제에 대하여 2014년 연구에서 많은 편폭을 할애하여 대단히 고심하였다(전광진 2014, 184-186). 張永利(2000)가 “세덕어의 음절 구조에는 ‘복자음’(consonant cluster, 영어의 spy, gospel, grasp 같은 예)이 없다. 표면상으로는 CCV가 있지만, 그러한 예들은 통상 비강세 음절의 모음이 생략된 결과 이다.”²⁷⁾ “이른바 음절구조란 것은 일반적으로 基底형식을 말하는 것이지, 變化형식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bn·qt 등의 복자음은 語頭에만 등장되지, 영어의 복자음 같이 語頭나 語中, 語尾에 자유롭게 출현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세덕어의 음절구조에는 복자음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²⁸⁾라고 주장한 것을 근거로 복자음 문제에 도외시하였다. 현지 언어 조사 결과 張永利(2000)이 주장이 옳았다. 다만 그의 견해와 같이 “비강세 음절의 모음이 생략된 결과”가 아니라 書寫의 편의를 위하여 모음 u의 표기를 생략한 결과임이 현지 언어 조사를 통하여 밝혀졌다. 이를 테면 Tgudaya는 Tugudaya의 첫 번째 음절의 u에 대한 표기를 편의상 생략한 결과이지 비강세 음절의 모음이기에 생략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철자법 관례는 대단히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 따라서 복자음 문제는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26) VC의 C도 이론상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張永利(2000, 44)가 예로든 단어 un ‘~이다’ [운] 외에는 더 없어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27) “賽德克語的音節結構裡沒有「輔音群」(consonant cluster)(比較英語的例子如 spy, gospel, grasp), 雖然表面上有CCV, 但這些通常是非重音元音省略的結果。”

28) “一般所謂的音節結構指的是形式, 而不是變化形式。而且, bn, qt等輔音群只出現在字首, 不像英語的輔音群那樣自由, 字首, 字中和字尾都可以出現, 因此, 我們認為賽德克語的音節結構裡沒有輔音群。”

IV. 수정 한글서사체계의 適用 및 試用 方案

1. 수정안의 適用

한 언어에 대한 한글 서사체계는 그 언어에 쓰인 자음 및 모음 음소에 한글 자모를 대응시킨 결과물이다. 그렇게 수립된 서사체계가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적용이라는 실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적용의 첫 단계는 기초 어휘이고, 그 다음 단계는 문장이다. 수정안을 228개 기초어휘에 적용시켜 본 결과 대체로 무난하게 서사되었다. ‘세에디크 뚜구다야어 한글서사 기초어휘’는 편의상 **【부록】** 으로 실어 놓았다.

10개 문장을 대상으로 수정안을 적용시켜 아래와 같이 서사해 보아도 큰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다. 그 각각의 문장은 張永利(2000, 61-149)에서 발췌한 것이나, 두 차례에 걸친 원어민 전문가의 확인을 통하여 오류를 수정한 것이다. 알파벳 표기, 한글 서사, 단어 해석²⁹⁾, 문장 의미, 이상 네 가지를 배열해 놓았다. 양적으로 그리 많지는 않지만 이를 통하여, 이 언어를 한글로 서사하는 것이 무난함을 증명할 수 있다. 4장 2절에서는 더 긴 문장을 대상으로 수정안을 試用해 보기로 하겠다.

- ① uka ku pila
우까 꾸 빠라
없다, 나, 돈
나는 돈이 없다.
- ② ini ku ekan ido nana
이니 꾸 에칸 이도 나나
아니, 나, 먹다, 밥, 아직
나는 아직 밥을 안 먹었다'

29) 단어 해석에 표시된 PF와 AF는 Patient Focus(피행위자 초점), Agent Focus(행위자 초점)의 준말이다.

- ③ ini tai pila mu di
이니 타이 빠라 무 디
아니, 보다-PF, 돈, 나의, 〈완료〉
나의 돈이 없어졌다.
- ④ ini ku kela
이니 꾸 깨라
아니, 나, 알다.
나는 모르겠다.
- ⑤ ini ku sukuxul kiya
이니 꾸 수꾸홀 끼야
아니, 나, 좋아하다, 그것
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 ⑥ ini kutilux ali saya
이니 꾸띠루허 아리 사야
아니, 답다, 오늘.
오늘은 답지 않다.
- ⑦ uxe huling nii
우헤 후링 니이
아니, 개, 저것
저것은 개가 아니다.
- ⑧ uxe ku meeyah kusun
우헤 꾸 메에야흐 꾸순
아니, 나, 〈미래〉, 오다, 내일
나는 내일 올 수 없다.
- ⑨ ini sumu biqi
이니 수무 비키
아니, 당신, 나, 주다-PF
나는 당신에게 주지 않았다.

- ⑩ iya quberiq! uxe sino nii! ini ku imah sino nana,
이야 쿠베리끄! 후헤 시노 니이! 이니 꾸 이마흐 시노 나나
 말라. 속이다. 아니다. 술, 이것, 아니, 나, 마시다. 술, 아직
 속이지 마! 이것은 술이 아니야! 나는 아직 술을 마시지 않았어.

mukela ku xue sino nii. uka sino, uxe ku mekan ido.
무께라 꾸 후에 시노 니이. 우까 시노, 우헤 꾸 메간 이도.
 AF-알다, 나, 아니다. 술, 이것, 없다. 술, 말라, 나, AF-먹다, 밥
 난 알아 이진 술이 아닌 걸. 술이 없으면, 난 밥을 먹고 싶지 않아!

2. 수정안의 試用

無文민족의 언어에 대한 한글 서사체계를 수립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해당 언어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와 음성학적 조사라는 기초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입안할 수 있다. 문제는 활용 방안이다. 장기에 걸쳐 끈질긴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活用은 試用과 實用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실제 사용은 해당 민족 自主의 정치적 또는 정책적 문제에 부딪히면 수 백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한글이 실용화 단계에 이르는 데 4~5백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해주고도 남음이 있다. 수많은 난관이 있더라도,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끊임없는 試圖과 試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시도 자체만으로도 매우 뜻 깊은 일이다. 《訓民正音》 제정 이후 《龍飛御天歌》나 《釋譜詳節》 등을 편찬한 것도 이러한 끈질긴 試用 과정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세에디크-뚜구다야어 한글 서사체계'의 試用 방안의 일환으로 〈한글 서사 세에디크-뚜구다야어 주기도문〉을 작성해 보았다. 타이완 원주민족들은 서양 선교사들의 끈질긴 포교 활동의 영향으로 거의 모두 기독교도가 되었다. 세에디크-뚜구다야어의 알파벳 서사체계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것도 그러한 선교 활동의 결과였다. 2015년 1월 26일 언어 조사를 위하여 현지에 처음 갔을 때, 외판 디로 목사를 통하여 알파벳으로 서사된 '세에디크-뚜구다야어 주기도문'을 입수하였다. 당시 초보적인 한글 서사본을 만들어 외판 디로 목사에게 읽어 주었더니, 현지인들은 1년 동안 익혀도 주기도문을 잘 읽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루

만에 입을 줄 아느냐고 깜작 놀랐던 광경이 아직도 역연하다.

이에 용기를 얻어 2차 방문 기간 중인 2016년 2월 16일 〈한글 서사 세에디크-뚜구다야어 주기도문〉 초안을 작성하였다. 본 절에 소개한 것은 수정 한글서사체계를 적용한 〈한글 서사 세에디크-뚜구다야어 주기도문〉(1, 2)이다. (1)은 알파벳 서사체계를 併記 한 것이고³⁰⁾, (2)는 오로지 한글로만 서사한 것이다. 3차 방문 때 이것을 인쇄하고 코팅하여 현지인들에게 기념으로 나누어 줄 예정이다. 주기도문을 이미 외우고 있는 사람은 외운 데로 읽다보면 자연스럽게 한글을 깨치게 될 것이다. 오랜 기간 그렇게 하다보면 알파벳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한글이란 점을 터득하게 되리라 추측된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세에디크-뚜구다야어 한글 서사체계’를 익히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하향식(top down)이 아니라 상향식(bottom up)으로 한글이 점진적으로 보급되는 기반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염원과 희망을 담은 한글 서사 주기도문 2종을 아래에 적어 본다.

〈한글 서사 세에디크-뚜구다야어 주기도문〉(1)³¹⁾

두무룬 똥구사안 예수
Dmrun tnggsaan Yesu

따마 미안 가가 바로.

Tama miyan gaga baro.

따이 수 소 무뿌꾸라와 까나 뚜랑안.

Tai Su so mpklawa kana tlangan.

- 30) 알파벳 書寫體系는 모음 u가 중복 출현되는 경우 그 표기를 생략하는 전통 방식을 준용하였다. 이를테면 dumurun(‘기도하다’)을 dmrn으로 줄여 서사하는 방식을 따르기로 한다.
- 3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아멘.” 내용은 위와 같으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語彙를 출현 순서대로 集釋해 놓았다.

소 수뿌루운 까나 세에디크 까 꾸누마루 아얀 수.

So spruun kana seediq ka knmalu ngayan Su.

소 퉁퉁안 수 바로 게 꾸쭈하야 보보 데헤랄 우리.

So lnglungan Su baro ge kchaya bobo dheral uri.

뿌뿌쿤 미얀 게 비키 미얀 아리 사야.

Ppuqun miyan ge biqi miyan ali saya.

수루와이 미얀 까 쿠누쿠완 미얀.

Srwai miyan ka qnquwan³²⁾ miyan,

소 와다 나미 수무루와 쿠누쿠완 다하.

So wada nami smruwa qnquwan daha.

이야 나미 뿌다이 무쿠리킬 뿌누세앵안.

Iya nami pdai mqraqil pnseengan,

뿌꾸두시 미얀 빼에야흐 나카흐.

pkdusi miyan peeyah naqah

아도 꾸누루와안 마 베야허 마 꾸누레다허 게

Ado knluwaan ma beyax ma knledax ge

마하 니니수 아니 베타크 꾸누완. 아멩.

maha³³⁾ nnisu ani betaq knuwan. Ameng.

-2016. 2. 16 초고 작성, 2016.10.25. 1차 수정, 2016. 12. 10 2차 수정

- 32) 뿌구다야어 주기도문이 定本으로 굳어진 것이 아니라 계속 수정되고 있는 중임을 3차 현지 언어 조사 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 원래는 이것이 '죄악(罪惡)/불결하다(不潔)는 뜻인 rutiq[루띠크]로 쓰다가 '범하다(過犯)는 뜻인 qnquwan[쿠누쿠완]으로 교체되었음을 알려 주었다(Watan Diro 2016, 1). 이 단어는 아래 줄에도 한 번 더 출현된다.
- 33) '원래'라는 뜻인 ida[이다]가 '되다(成爲)/가다(去)는 뜻인 maha[마하]란 단어로 교체된 수정본에 의거하여 고쳤다.

※참고 : 세에디크-뚜구다야어 주기도문의 語彙 集釋

- (01) **두무룬**(dmrun) : 맡기다(對人)委託, 기도하다(對主)祈禱
- (02) **뚜구사안**(tnggsaan) : 이끌어주는 분(教導的)
- (03) **예수**(Yesu) : 예수(耶蘇)
- (04) **따마**(tama) : 아버지(父親).
- (05) **미얀**(miyan) : 우리의(我們的)
- (06) **가가**(gaga) : -에(在)
- (07) **바로**(baro) : 위쪽(上面), 천상(天上)
- (08) **따이**(tai) : 원하다(願), 보다(看).
- (09) **수**(Su) : 당신(你), 주님(祿)
- (10) **소**(so) : 같이(如同), 처럼(像)
- (11) **무뿌꾸리와**(mpklawa) : 돌보다(照顧), 보살펴주다(眷佑)
- (12) **까나**(kana) : 전부(全部), 모든(所有), 일체(一切).
- (13) **뚜랑안**(tlangan) : 전세계(全世界), 지상(地上).
- (14) **수뿌루운**(spruun) : 존송하다(尊崇)
- (15) **세에디크**(seediq) : 사람(人)
- (16) **까**(ka) : 이다(是)
- (17) **꾸누마루**(knmalu) : 신성한(神聖的), 가장 좋은(最好的)
- (18) **아얀**(ngayan) : 이름(名字).
- (19) **룽룽안**(lnglungan) : 뜻(旨意), 사상(思想).
- (20) **게**(ge) : 어조사(語助詞)
- (21) **꾸쭈하야**(kchaya) : 이렇게(這樣)
- (22) **보보**(bobo) : 위(上面), 땅위(地面上).
- (23) **데헤랄**(dheral) : 토지(土地), 지상(地上).
- (24) **우리**(uri) : 또(也), 그리고(還).
- (25) **뿌뿌쿤**(Ppuqun) : 음식(飲食).
- (26) **비키**(biqi) : 주다(給)
- (27) **아리**(ali) : 날(日子)
- (28) **사야**(saya) : 오늘(今天), 현재(現在).
- (29) **수루와이**(Srwai) : 사면(赦免)하다.
- (30) **쿠누쿠와안**(qnquwan) : 범하다(過犯).
- (31) **와다**(wada) : 가다(去).
- (32) **나미**(nami) : 우리(我們).
- (33) **수무루와**(smruwa) : 동의하다(同意), 용서하다(饒恕).

- (34) 다하(daha) : 그들(他們), 2(二).
 (35) 이야(iya) : -하지 말아야 한다(不要)
 (36) 뿌다이(pdai) : 통하여(通過), 빌어서(藉著).
 (37) 무쿠라킬(mqraqil) : 고난(苦難).
 (38) 뿌누세앵안(pnseengan) : 시험하다(試探).
 (39) 뿌꾸두시(pkdusi) : 구원해주다(拯救).
 (40) 빼에야흐(peeyah) : -로부터(從).
 (41) 나카흐(naqah) : 흉악한(凶惡), 나쁜(不好的)
 (42) 아도(ado) : 때문에(因爲).
 (43) 꾸누루와안(knluwaan) : 국도(國度), 나라
 (44) 마(ma) : 와(和), 및(及).
 (45) 베야허(beyax) : 권력(權柄)
 (46) 꾸누레다허(knledax) : 영광(榮耀)
 (47) 마하(maha) : 되다(成爲), 가다(去)
 (48) 니니수(nnisu) : 주님의 것(是祿的)
 (49) 아니(ani) : 비록(雖然).
 (50) 베타크(betaq) : 여전히(仍然到)
 (51) 꾸누완(knuwan) : 언제(何時, 什麼時候), 영원(永遠).

〈한글 서사 세에디크-뚜구다야語 주기도문〉(2)

두무룬 똥구사안 예수

따마 미얀 가가 바로.
 따이 수 소 무뿌꾸라와 까나 뚜랑안.
 소 수뿌루운 까나 세에디크 까 꾸누마루 아얀 수.
 소 룡룡안 수 바로 게 꾸쭈하야 보보 데헤랄 우리.
 뿌뿌쿤 미얀 게 비키 미얀 아리 사야.
 수루와이 미얀 까 꾸누쿠완 미얀.
 소 와다 나미 수무루와 꾸누쿠완 다하.
 이야 나미 뿌다이 무쿠라킬 뿌누세앵안.
 뿌꾸두시 미얀 빼에야흐 나카흐.
 아도 꾸누루와안 마 베야허 마 꾸누레다허 게
 마하 니니수 아니 베타크 꾸누완. 아멩.

V. 結論

2014년에 입안한 ‘세덕어 한글서사체계’의 試用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2016년 2월과 11월 총 3차에 걸친 현지 방문 조사를 하게 되었고, 그 성과를 결집시켜 아래와 같은 수정안을 내게 되었다. 그 수정 보완 결과를 알아보기 쉽도록 도표로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세에디크-뚜구다어語 한글 서사체계〉³⁴⁾

(1) 머리자음(14)

	순음	설침음	설근음	후음
파열음	p /ㅍ/	t /ㅌ/	k /ㄱ/	q /ㅋ/
	b /ㅂ/	d /ㄷ/	g /ㄷ/	
파찰음		c /ㅈ/		
마찰음		s /ㅅ/		(x)h /ㅎ/
설측음		l(r) /ㄹ/		
비 음	m /ㅁ/	n /ㄴ/	ng /ㅇ/	

(2) 꼬리자음(11)

	순음	설침음	설근음	후음
파열음			k /ㄱ/	q /ㅋ/
파찰음		c /ㅈ/		
마찰음		s /ㅅ/	x /ㅎ/	h /ㅎ/
설측음		l /ㄹ/		
		r /ㄹ/		
비 음		n /ㄴ/	ng /ㅇ/	
반자음		y /이/		

(3) 단순모음(7)

기본모음(5)	i /ㅣ/(이)		u /ㅜ/(우)
	e /ㅔ/(에)		o /ㅓ/(오)
		a /ㅏ/(아)	
특수모음(2): 꼬리자음의 성질 기능		/ㅑ/	/ㅡ/

(4) 이중모음(5)

w계	wa [와]
y계	yu [유], ye [예], yo [요], ya [야]

34) 〈2014 초안〉이 수정 변경된 것은 식별하기 쉽도록 음영으로 처리하였다.

기초어휘 228개와 문장 10개를 대상으로 수정안을 適用시켜 본 결과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試用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³⁵⁾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원주민 대부분이 기독교도임을 감안하여 〈한글 서사 세에디크-뚜구다이꺄름 주기도문〉 작성해 봄으로써 試用을 事前에 점검해 보았다. 이것은 한글로 서사된 세계 최초의 외국어 주기도문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 현지 방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주민들에게 널리 계몽하는 등 全心全力을 傾注할 것이다.

35) 그렇다고 2016 수정판 ‘세에디크-뚜구다이꺄름 한글 서사체계’가 完全無缺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음소 대응 관계로 보자면 머리자음 /x/와 /h/를 [ㅎ]으로, /l/과 /r/을 [ㄹ] 동일하게 서사한 점이 지속적인 적용 과정에서 의미혼동 문제가 야기되는지를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그러한 문제점의 심각성이 발견되면 달리 서사할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머리자음 /ng/를 옛이응이 아닌 현용 자모 [ㅇ]으로 서사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순수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의 서사와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테면 [이마] ‘누구’(誰) ima: [이수]‘너’(你) isu : [이오] ‘고양이’(貓) ngio 같은 예로 보자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 ngima 또는 ngisu 같은 어형을 가진 낱말이 있게 되면 의미 혼동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 가능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부록】 한글 서사 세에디크-뚜구다야어 기초어휘(228)

세에디크-뚜구다야어 기초어휘 228개는 張永利(2000)가 채집한 것을 현지 언어 조사를 통하여 다시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한글 서사도 2016 수정안을 적용시켰으며, 편의상 數詞와 일반 어휘로 나누어 놓았다. 일반 어휘의 배열은 한글 서사체계의 자모순으로 하였다.

(1) 수사

[킹알]	‘하나’(一)	kingal
[다하]	‘둘’(二)	daha
[떼루]	‘셋’(三)	teru
[세빠츠]	‘넷’(四)	sepac
[리마]	‘다섯’(五)	rima
[무무떼루]	‘여섯’(六)	mumuteru
[무베뚜]	‘일곱’(七)	mupitu
[무무세빠츠]	‘여덟’(八)	mumusepac
[몽아리]	‘아홉’(九)	mungari
[마할]	‘열’(十)	maxal
[꾸베꾸이]	‘일백’(一百)	kubekuy

(2) 일반 어휘(*표시 11개 어휘는 3차 현지 언어조사를 통하여 수정한 것임)

[가가]	‘그것’(那個)	gaga	[꾸이]	‘벌레’(蟲)	kui
[가밀]	‘뿌리’(根)	gamil	[나카츠]	‘나쁜’(壞的)	naqah
[구라칸]	‘꿩’(山雞, 雉)	gulaqan	[네에빠흐]	‘밭’(田)	neepah
[구미뚜꼬]	‘조다’(喙)	gumatuk	[누부아스]	‘배’(肚子, 腹)	nubuyas
[구메구이]	‘훔치다’(偷)	gumeguy	[니이]	‘이것’(這個)	nii
[까라츠]	‘하늘’(天)	karac	[다라]	‘피’(血)	dara
[카리]	‘말’(語言, 話)	kari	[다루크]	‘지방’(油脂)	daruq
[깨만]	‘밤’(夜晩)	keman	[다링]	‘가까운’(近的)	daling
*[꾸누루흐]	‘대들보’(主樑)	kunuruh	[다마츠]	‘반찬’(菜)	damac
[꾸두루꼬]	‘이마’(額)	kuduruk	[당이]	‘친구’(朋友)	dangi
[꾸로 빠빠꼬]	‘다리’(小腿)	kulo papak	[데케라스]	‘얼굴’(臉)	deqeras
[꾸루꼬]	‘거북’(龜)	kuluk	*[데헤랄]	‘땅’(地)	deheral
[꾸마구흐]	‘긁다’(抓, 癢)	kumaguh	[도리크]	‘눈’(眼睛)	doriq
[꾸미리]	‘파다’(挖)	kumari	[두미딜]	‘들다’(提)	dumidil
*[꾸미야꼬]	‘나누다’(割)	kumayak	[두홍]	‘절구’(臼)	duhung
[꾸메에끼]	‘춤’(跳舞)	kumeeki	[디안]	‘대낮’(白天)	diyan
*[꾸메리크]	‘끌어안다’(抱)	qumeraq	*[따관]	‘넘어지다’(跌倒)	takun
[꾸우비루허]	‘빌리다’(借)	kumubarux	[따라]	‘기다리다’(等候)	tara
[꾸웅]	‘어두운’(暗的)	kuung	[따마]	‘아버지’(父親)	tama

[따키]	‘잠자다(睡)	taqi	[무삐까]	‘질름발이(跛脚)	mupika
[테헤야]	‘먼(遠的)	teheya	[무세꾸이]	‘차가운(冷的)	musekuy
[또마 바하크]	‘심장(心臟)	toma bahaq	[무수와꼬]	‘하품하다(打哈欠)	musuwak
[뚜게이꼬]	‘트름(打囉)	tugeyak	[무아스]	‘노래하다(唱)	muyas
[뚜구래잉]	‘숨다(藏)	tuguleing	[무키다]	‘던지다(擲)	muqada
[뚜누허]	‘머리(頭)	tunux	[무케딘]	‘여자(女人)	muqedin
[뚜래웅]	‘앉다(坐)	tuleung	[무후리스]	‘웃다(笑)	muhulis
*[뚜루크]	‘가래(痰)	turuq	*[무후리크]	‘젓은(黏的)	muhuriq
[뚜리마]	‘씻다(洗手/洗濯)	turima	[무후킬]	‘죽은 것(死的)	muhuqil
[뚜미랑]	‘달리다(跑)	tumalang	[무흥운]	‘뾰족한(尖的)	muhungun
[뚜메롱]	‘더듬다(摸)	tumelung	[무칭]	‘코(鼻子)	muhing
[뚜미눈]	‘베를 짜다(織布)	tuminun	[미로]	‘뛰다(跳)	miro
[뚜미유]	‘가리키다(指)	tumiyu	[미리츠]	‘양(羊)	miric
[뚜키릉]	‘소나무(松樹)	tuqilung	[미미흐]	‘마시다(喝)	mimah
[리링]	‘갈고리(鉤)	laling	[미유꼬]	‘불다(吹)	miyuk
[리빠츠]	‘박쥐(飛鼠)	rapic	[비가]	‘손(手)	baga
[라키]	‘어린이(小孩)	laqi	[비리크]	‘폐(肺)	baraq
[레부]	‘오줌(尿)	rebu	[비로]	‘위(上面)	baro
[레히]	‘죽순(竹筍)	lexi	[비롱]	‘계란(蛋)	balung
[로두허]	‘닭(雞)	rodux	[비부이]	‘돼지(家豬)	babuy
*[루키흐]	‘상처(傷口)	luqah	[베라스]	‘쌀(米)	beras
[루개분]	‘위(胃)	lukebun	[베리흐]	‘앞(前面)	berah
[루꾸스]	‘의복(衣服)	lukus	[베헤나크]	‘활(弓)	behehaq
[루마와흐]	‘열다(打開)	rumawah	[보이꼬]	‘멧돼지(山豬)	boyak
[루망우이]	‘수영하다(游泳)	lumanguy	[부구리흐]	‘새것(新的)	bugurah
[루멍오]	‘말하다(說)	rumengo	[부기후르]	‘바람(風)	bugihur
[루무게루이]	‘체로 치다(箭)	rumugeruy	[부꾸이]	‘뒤(後面)	bukuy
[루무베루이]	‘불태우다(燒烤)	lumubeluk	[부나꾸이]	‘모래(砂)	bunaguy
[루문]	‘간(肝)	runun	[부누흐]	‘모자(帽子)	bunuh
[루밍이스]	‘울다(哭)	lumingis	[부디]	‘화살(箭)	budi
[루뽀]	‘치아(牙齒)	rupun	[부디간]	‘대나무(竹子)	butakan
[루뽀]	‘자리(蓆子)	lupi	[부테리크]	‘허벅지(大腿)	buteraq
[루세노]	‘남자(男人)	ruseno	[부두누허]	‘돌(石)	butunux
[릉에]	‘원숭이(猴子)	runge	[부루와]	‘천둥(打雷)	buruwa
[마루]	‘좋은(好的)	malu	[부리군]	‘밭(黃)	burigun
[마루이]	‘사다(買)	maruy	[부부]	‘엄마(媽媽)	bubu
[마하]	‘가다(去)	maha	[부수간]	‘취하다(醉)	busukan
[마하다]	‘익은(熟的)	mahada	[부유구]	‘비둘기(鴿子)	buyugu
[마후]	‘(옷을) 빨다(洗衣服)	mahu	[비리츠]	‘귀(耳朵)	birac
[망안]	‘들다(拿)	mangan	[비지크]	‘작은(小的)	bicicq
[메게]	‘주다(給)	mege	[비기트]	‘갑상선종	biqir
[메간]	‘먹다(吃)	mekan	[메루]	‘크다(大的)	paru
[메루이]	‘닫다(關上)	meluk	[메빠꼬]	‘발(脚)	papak
[메루크]	‘날 것(生的)	meluq	[메에]	‘벼(穀穀)	paye
[메이흐]	‘오다(來)	meyah	[메이스]	‘적(敵人)	pais
[메에빠흐]	‘일하다(做工)	meepah	[메홍]	‘담(膽)	pahung
[무개라]	‘알다(知道)	mukela	[부니크]	‘불(火)	puniq
[무꾸게사]	‘걸다(走)	mukukesa	[부도]	‘짧은(短的)	puto
[무꾸내두허]	‘두꺼운(厚的)	mukunedux	[부리부]	‘구름(雲)	pulabu
*[무영우]	‘마른(乾的)	mudengu	[부리꼬]	‘모기(蚊子)	pureko
[무따크]	‘토하다(嘔吐)	mutaq	[부시니크]	‘금기(禁忌)	pusaniq
[무앵이]	‘배부른(飽的)	mutengi	[부시행이꼬]	‘호흡(呼吸)	pusehengak
[무리후츠]	‘다람쥐(松鼠)	murihuc	[부후링]	‘사냥하다	puhuling
[무비항]	‘듣다(聽)	mubahang	[뽀에리흐]	‘별(星星)	pungerah

[사리]	‘토란(芋頭)	sari	[와레]	‘실(線)	ware
[사마]	‘채소(蔬菜)	sama	[와루]	‘벌(蜜蜂)	walu
[사빠흐]	‘방(屋子)	sapah	[와소]	‘잎(葉)	waso
[세루]	‘절굿공이(杵)	seru	[이다스]	‘달(月亮)	idas
[세에디크]	‘사람(人)	seediq	[이로]	‘버섯(香菇)	ngiro
[수기야]	‘날다(飛)	sukiya	[이마]	‘누구(誰)	ima
[수누라기]	‘미끼(餌)	sunuraki	[이수]	‘너(你)	isu
[수누부랑안]	‘긴 띠(長茅)	sunuburangan	[이오]	‘고양이(貓)	ngio
[수누유고]	‘밭줄(繩子)	sunuyuk	[제헤딘]	‘무거운(重的)	cehedin
[수두]	‘풀(草)	sudu	* [쭈루카흐]	‘가벼운(輕的)	culukah
[수루마디츠]	‘칼(獵刀)	sulumadac	[쭈메부]	‘쏘다(射)	cumebu
[수미엔]	‘자리갈다	sumapo	[쭈무찌츠]	‘오래된(舊的)	cumucac
[수미아스]	‘집담(縫)	sumais	[쭈미유고]	‘대답(回答)	cumiyuk
[수메]	‘곰(熊)	sume	[찌다]	‘가지(枝)	cida
[수메라크]	‘죽이다(殺死)	sumelaq	[카베]	‘함정(陷阱)	qapi
[수메부츠]	‘타작하다(打穀)	sumebuc	[코리츠]	‘들쥐(田鼠)	qolic
[수메베]	‘꿈(做夢)	sumepi	[쿠네디스]	‘긴(長的)	qunedis
[수무개누허]	‘냄새를 맡다(嗅)	sumukenux	[쿠피]	‘똥(屎)	quti
[수무네군]	‘따르다(跟隨)	sumunegun	[쿠루리]	‘표류하다(漂流)	qululi
[수미노]	‘(그릇을) 씻다(洗碗)	sumino	[쿠미]	‘바늘(針)	qumi
[수뿌뚜]	‘과인에플(鳳梨)	suputu	[쿠미유츠]	‘물다(咬)	qumiyuc
[수웨이]	‘동생(弟弟妹妹)	suwai	[쿠부리츠]	‘젓다미(灰燼)	qubulic
[숭이피]	‘뱀장어(鱧)	sungiti	[쿠부수란]	‘형, 언니(兄弟)	qubusuran
[시노]	‘술(酒)	sino	[쿠와크]	‘입(嘴)	quwaq
[시부스]	‘사탕수수(甘蔗)	sibus	[쿠유]	‘뱀(蛇)	quyu
[아리츠]	‘오른쪽(右邊)	ngarac	[쿠유허]	‘비(雨)	quyux
[아랑]	‘마을(部落)	alang	[쿠후니]	‘나무(樹木/木柴)	quhuni
[아릉]	‘철산갑(穿山甲)	arung	[키따]	‘보다(看)	qita
[아리]	‘날짜(日字/時間)	ali	[헤이]	‘고기(肉)	hei
[아얀]	‘이름(名字)	ngayan	[헤이]	‘과일(果實)	hei
[아꾸]	‘나(我)	yaku	[후나츠]	‘아래(下面)	hunac
[아무]	‘너희들(你們)	yamu	[후링]	‘개(狗)	huling
[아미]	‘우리(我們)	yami	[후망우츠]	‘삶다(煮)	humanguc
[아웅]	‘강물(河流)	yayung	[히도]	‘태양(太陽)	hido
* [에루]	‘길(路)	elu	[히쿠르 비가]	‘팔꿈치(手肘)	hiqur baga
[에뿌허]	‘얇은(薄的)	epux			

【參考文獻】

- 다니엘스 2006,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의 집단(가오산족)〉, 《중국소수민족입문》(李妍周 등 번역, 서울: 현학사), 273-281. 2006.
- 이연주 2006, 《중국소수민족입문》(다니엘스 등 원저), 현학사.
- 이재돈 2016,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타난 중국 음운학 이론〉, 2016년 국립한글박물관 훈민정음 학술대회 발표 논문.
- 이호영 1996, 《국어음성학》, 태학사.
- _____ 2009, 〈짜아짜아어의 한글 서사체계〉, 훈민정음학회 2009 전국 학술대회(10월 9일 서울대학교) 발표 논문집, 93-98.
- 戴庆厦 1999, 《中国少数民族语言文字应用研究》, 云南民族出版社.
- 鲁洪柯 2008, 《台湾少数民族-太鲁阁》, 台海出版社.
- 眉堰基督长老教会 2016, 《门徒训练手册》, 影印本.
- 潘英 2000, 《臺灣墾住民族的歷史源流》, 臺墾出版社.
- 宋丽梅 2016, 《赛德克语语法概论》, 墾住民族委员会.
- 杨秀芳 1976, 〈赛德克语雾社方言的音韵结构〉, 《史语所集刊》47.4: 611-706.
- 墾民会 2005, 《墾住民族语言书写系统》. 行政院墾住民族委员会、教育部. 台北.
- 墾住民族研究中心 2006, 《德克达雅语学习手册·教师手册》, 行政院墾住民族委员会出版.
- 劉芳育 1994, 〈我对臺灣南岛语系民族语言文字化的几点思考〉, 《中国边政》126, 35-39.
- 李壬癸 1991, 《臺灣南岛语言的语音符号系统》, 教育部教育委员会.
- _____ 2003, 《臺灣墾住民史: 语言篇》, 国史馆臺灣文献馆.
- 李祖钦 2009, 《赛德克民族族语图解辞典》, 南投县墾住民族行政局.
- 张永利 2000, 《赛德克语参考语法》, 台北: 远流出版公司.
- 陈康 1988, 〈南岛语系〉, 《中国大百科全书(语言文字)》, 299-301. 1988.
- 陈康·马荣生 1986, 《高山族语言简志(排湾语)》, 民族出版社.
- 陈雨岚 2000, 《台湾的墾住民》, 远足文化公司.
- 何大安·杨秀芳 2000, 〈南岛语与台湾南岛语〉, 《台湾南岛语言丛书》1-36.
- 洪良全 2009, 〈赛德克族文化概述〉, 《赛德克族乐舞教材》(行政院墾住民族委员会文化园区管理局), 1-29.
- Watan Diro·柯眞光 2016, 《赛德克民族语言文化课程》, 手稿本.
- Asai, 浅井惠伦 1953, *The Sedik Language of Formosa*. Kanazawa University Press, Japan.

Pecoraro, Ferdinando 1977, Essai de Dictionnaire Taroko-Francais. S.E.C.M.L. Paris.

Peter Bellwood 2009, "Formosan Prehistory and Austronesian Dispersal". Austronesian Taiwan. Edited by David Blundell. U. C. Berkeley. 336-364.

【Abstract】

The "Hangeul writing systems of Seediq Language", developed in 2014, is a written study based on the survey of Zhang Yong-li (2000), which was then lacking the corresponding fieldwork and verification. In order to revise and supplement this internal problem, I have conducted local survey tour in January 2015, February 2016 and November 2016, and based on these survey results, I propose the following revisions:

① initial(14): p[ㅍ], t[ㅌ], k[ㄱ], q[ㅋ], b[ㅍ], d[ㄷ], g[ㄱ], c[ㅈ], s[ㅅ], h(x)[ㅎ], l(r)[ㄹ], m[ㅁ], n[ㄴ], ng[ㅇ]

② ending(11): k[ㄱ], q[ㅋ], c[ㅈ], s[ㅅ], h[ㅎ], x[허], l[ㄹ], r[ㄹ], n[ㄴ], ng[ㅇ], y[ㅇ]

③ vowel(5): i[ㅣ ~이], u[ㅓ ~우], e[ㅔ ~에], o[ㅑ ~오], a[ㅏ ~아]

④ others : special vowel(2) : -[ㅓ], ㅣ[ㅕ]

diphthong (5) : wa[와], yu[유], ye[예], yo[요], ya[야]

In this paper, 230 basic words and 10 sentences are analyzed, and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no big problem, and the practicability of this scheme can be seen. In addition, on this basis, because the majority of local aboriginals are Christians, wrote "The Lord's Prayer of Seediq-Tugudaya by Hangeul writing systems", as the test tentatively wrote. The meaning of this prayer is that it is the world's first Hangeul prayer in foreign

languages 'The Lord's Prayer'.

【主題語】

타이완, 남도어족, 세에디크-뚜구다야어, 한글, 서사체계

臺灣, 南島語系, 賽德克-德固達雅語, 韓文, 書寫系統

Taiwan, Austronesian, Seediq-Tugudaya Language, Hangeul, Writing systems

투고일: 2017. 01. 13 / 심사일: 2017. 01. 20 ~ 02. 16 / 게재확정일: 2017. 02. 18